

## 博物館学的な観点からみた韓国文化の展示

著者	崔 鍾浩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68-73
発行年	2000-07-24
URL	<a href="http://doi.org/10.15021/00002223">http://doi.org/10.15021/00002223</a>

## 博物館学的な観点からみた韓国文化の展示

崔鍾浩（韓国民俗村博物館）

国際博物館協会定款と博物館専門職員倫理綱領に「博物館は公衆に開放され、社会と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非営利の「港」的な機関として学習と教育、レクリエーションのため、人間と人間の環境に関する物質的な証拠を収集・保存・研究・交流・展示する」と定義されている。国立民族学博物館は遺物と、それ以外の資料を収集し、民族学的な研究を遂行し、その成果を展示する複合的な研究博物館として1974年に一般公衆に世界諸民族の社会と文化に関する最新の情報を提供し、世界の人々に関する大衆の理解を深めようと設立された。

国立民族学博物館の第8展示場が、1983年3月に竣工され、同年11月に「朝鮮半島の文化」が一般大衆に公開された。その当時のプロジェクト・リーダーであった祖父江孝男は、「この地域の展示の基本プリンシプルとしては、現代の韓国の精神生活における二つの基本的な枠組となっている“民間信仰”と“儒教”の二つを大きな柱とし、それらの間に衣食住の物質文化を配列して、韓国の文化の構造を示すようにつとめた」と明らかにしている[1984「東アジア（朝鮮半島の文化）展示」『国立民族学博物館十年史』:p.299]。その当時の展示構想は、民間信仰、芸能、食生活、住生活、衣生活、儒教に立脚しているが、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は、朝倉敏夫がすでに明らかにしたように従来の展示資料と、所蔵している標本資料を最大に活用し、新しく収集した現代文化の標本資料を活用し、屋内展示空間と野外のパティオに伝統と現代の出会いを追求したことがもっとも大きな変化といえる。朝倉が明らかにしたように「伝統」を過去の残骸ではなく、現在の視点から活動する文化の力として規定したなら、伝統という「意味がある過去」と現在の出会いが自然と生じるであろう。このような試みは結局、朝鮮半島の文化の過去と現在、そして未来の姿を予測してみられるように、導いていく「つながりの輪」展示のいいモデルとなる。

「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空間は、「東アジア」展示の空間の入り口に位置しており、利用者の注目を受けるにはいい場所といえるだろう。博物館学的な観点からみたとき、「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空間は、屋内空間と野外のパティオ、電子ガイドとビデオテークの情報空間、そしてオンライン・インターネット・ウェブサイトの仮想

## 博物館學的인 관점에서 본 韓國文化 展示

崔鍾浩(韓國民俗村博物館)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과 박물관 전문직원 윤리강령에 “박물관은 공중에 계 개방되고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물질적 증거를 수집·보존·연구·교류·전시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유물과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하고 민족학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전시하는 복합적인 연구박물관으로서 1974년에 일반공중에게 세계 諸民族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의 인민에 관한 공중의 이해를 심화하고자 설립되었다.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제 8전시장이 1983년 3월에 준공되어 같은 해 11월에 “朝鮮半島의 文化”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 그 당시의 프로젝트 리더 祖父江 孝男은 “이 지역 전시의 기본 원칙은 현재의 한국 정신 생활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민간신앙」과 「유교」를 커다란 축으로 하여, 그 둘 사이의 衣食住 물질문화를 배열함으로써 한국문화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1984 「東아시아 (朝鮮半島의 文化) 展示」 『國立民族學博物館十年史』: p. 299] 그 당시의 전시구성은 민간신앙, 예능,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유교에 입각했으나, 新 「한반도 문화」 전시는 朝倉敏夫가 이미 밝혔듯이 종래의 전시 자료와 소장하고 있는 표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새로 수집한 현대문화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옥내 전시공간과 야외의 파티오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추구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朝倉이 밝혔듯이 「전통」을 과거의 잔재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활동하는 문화의 힘으로서 규정한다면 전통이야말로 「의미 있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한반도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연계고리」 전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朝鮮半島의 文化” 전시공간은 「동아시아」 전시공간의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現実的な空間から伝達される、そのシナジー効果は核融合に比肩されるほど爆発的な威力をみせてくれ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実際に展示空間で利用者が五感を通して体験できることは限界があり、電子ガイドとビデオテークを利用しない場合には、その効果が半減される。

国立民族学博物館は、おもに「もの」を通して世界諸民族の社会と文化に関する最新の情報を提供し、世界の人々に関する理解を手伝う研究中心の博物館として知られている。しかし、すでに国立民族学博物館は有形の資料だけではなく、無形の情報を過去から現在にいたるまで収集して保存し、研究し、交流・展示する研究中心の民族学博物館として、その機能と役割を忠実に遂行してきた。今、新たな試みが必要なときであると判断される。新たな試みは野外展示空間の連繋の輪を最大に確保することであり、研究中心の博物館という枠組みから一步踏み出て世界とつながりをもった、学習と教育、レクリエーションのネットワークを提供し、その役割と機能を調和させ、均衡を取ることである。

博物館の役割と機能に関することを百分率で評価して比較するとき、有形の物質資料は収集と保存、交流の観点から運用者に対する考慮を可能であれば、51%以上維持し、無形の非物質的情報（information）は研究と交流、教育などのために利用者に対する考慮を可能であれば51%以上維持する必要がある。なぜなら最近の資料と情報管理、運営管理システムがまだまだ運営者中心の枠組みを抜け出しておらず、それがずっと維持されると感じるからである。その端的な事例は、展示技法が方法から千篇一律的な管理システムを適用しているため、利用者の立場からみれば、満足を感じるより、多少ごちなく、不便さを感じる反面、研究者と管理運営者の立場からみれば、管理運営に便利なシステムとして構成されている。

もっとも代表的な事例が「もの」を通して人々と対話を試みている展示空間で、電子ガイド・キットを利用せずに観覧をする場合には一般人が理解できない展示があまりに多い。そのことは逆説的に展示物のイメージだけを伝達しようと努力することであり、本当のイメージを通して、そのなかに含まれたテキストを交流する意志が弱いことをみせるものである。

今後、「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空間に補完できればと思うことを簡単に述べていきたい。展示シナリオ構想から朝鮮半島全体を扱うことがよい。そして、「朝鮮半島の文化」というより、「韓民族の文化」という方が国立民族学博物館設立の趣旨にも合うと判断するが、地域展示を中心とする国立民族学博物館の特性を反映するとして

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공간은 옥내공간과 야외의 파티오, 전자가이드 키트와 비디오 테크의 정보공간에서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웹사이트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전달하는 그 시너지 효과는 핵융합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위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시공간에서 이용자가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자가이드 키트와 비디오 테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주로 「물건」을 통해서 세계 諸民族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의 인민에 관한 이해를 돕는 연구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유형의 자료뿐 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집하여 보존하고, 연구하여 교류·전시하는 연구중심의 민족학박물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이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새로운 시도는 야외전시공간의 연계고리를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고, 연구중심의 박물관 틀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와 연계된 학습과 교육, 위락의 망조직(network)을 제공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을 백분율로 평가해서 비교할 때, 유형의 물질자료는 수집과 보존, 교류 관점에서 운영자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면 51%이상 유지하고, 무형의 비물질 정보(information)는 연구와 교류, 교육 등을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면 51%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료와 정보관리 운영관리 시스템이 아직까지 운영자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한 단적인 예는 전시기법과 방법에서 천편일률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을 느끼기 보다 다소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에 연구자와 관리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운영하기에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물건」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전시공간에서 전자가이드 키트를 이용하지 않고 관람을 할 경우에는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시가 너무나 많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전시

も、「韓半島の文化」とするのがよいと思われる。韓民族の文化に関する資料と情報を時代、地域、階層、年齢、性別、職業などを考慮しながら収集し、研究して展示と交流に活用することが望まれる。時代が判別される資料については時代を明記する必要がある。たとえば、濟州島の民家の縮小した模型は1970年代の姿である。資料と情報を収集し、研究し、展示するとき、北朝鮮資料と情報に対する考慮をすればと思われる。資料が提示されたならよかった。

展示物の名称をしるすときは、可能ならば一定したところにするのが好まれる。たとえば、小テーマの「檀君像」は下に置き、「民俗工芸」は壁面上段につけ、一般人の視覚からは飛び出ている。すでに規格化された名称である場合、設置位置と高さは展示物の位置と高さ、そして大きさにしたがって調整されるべきである。たとえば、「現代文化」コーナーのプロ野球選手ユニフォームの名称は、高さが現在よりも相対的に高くなければ観覧客が楽に読むことができない。展示物の壁面設置の高さを自然な高さに一定するか、最小限の波にしないといけない。そして、展示物の設置と配置の最高位は、観覧する便宜上、でこぼこに設置したり、配置するより、でこぼこがあっても全体的な外形線が一定しているか、放物線、あるいは逆放物線などの自然なライン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とえば、「キリスト教文化」コーナーの屏風と、それ以外の展示物の外郭線に注意を払われたい。「生産用具」コーナーの場合、逆光のグレオ現象をなくすようにし、一部壁面の展示が高すぎるとと思われる。たとえば、生活用具、巫俗文化などの場合には、視線の視覚が高すぎると不便である。

물의 이미지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진정 이미지를 통해서 그 속에 함축된 텍스트를 교류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앞으로 “조선반도의 문화” 전시공간에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전시 시나리오 구성에서 조선반도 전체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문화” 라기 보다 “한민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국립민족학박물관 설립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라고 판단하지만 지역별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한민족의 문화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시대, 지역, 계층,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수집하고 연구하여 전시와 교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대를 판별할 수 있는 자료는 시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 민가 축소모형은 1970년대의 모습이다.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전시할 때, 북한자료와 정보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한다. 자료가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전시물의 명찰을 배치할 때는 가능하면 일정한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소주제의 「단군상」은 바닥에 놓여 있고, 「민속공예」는 벽면 상단에 부착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 이미 규격화된 명찰인 경우에 부착위치와 높이는 전시물의 위치와 높이,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대문화」 코너의 프로야구선수 유니폼의 명찰은 높이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야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 전시물의 벽면 부착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이가 일정하거나 최소한 물결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시물의 부착과 배치의 최고 높이는 관람의 편의를 위해서 들쭉날쭉하게 부착하거나 배치하기 보다 요철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외형선이 일정하거나 포물선 또는 역포물선 등의 자연스런 라인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문화」 코너의 병풍과 그 밖의 전시물의 외각선을 주시하기 바란다. 「생산용구」 코너의 경우에 역광의 글레어 현상을 없애도록 하고, 일부 벽면 전시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생산용구, 무속문화 등의 경우에는 시선의 시각이 지나치게 높아서 불편을 준다.